

하루만에 읽는 십계명

기독교복음사역원

메시지사역장 손 영

1. 백성이 가나안에서 지킬 계명(출24:12~18, 신4:13~14)
2. 모세오경에 나타난 혼인법(신7:3~4, 출22:16~17)
3. 하나님의 법에서 나타난 율법의 완성
4. 십계명(출20:3~17)
5. 하나님이 금하신 법
6. 구약의 일반법 중 혼인과 이혼에 관한 법(신7:2~4, 24:1)
7. 성경에 나타난 사회윤리에 관한 법
8. 구약에 나타난 도피성 제도(逃避城制度)
9.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
10.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11. 왜 인간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12. 신약시대의 우상숭배
13.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출20:7)
14.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주일과의 관계
15. 부모 공경의 방법과 상급
16. 부모와 자식에 대한 교훈
17. 부모의 자녀를 위한 교육
18. 제 6계명에서 금하는 죄와 교훈
19. 제 7계명에서 말한 간음죄와 처벌규정
20.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21.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도적질
22. 네 이웃에 대한 거짓증거
23.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24. 주님이 말씀한 두 계명

1. 백성이 가나안에서 지킬 계명(출24:12~18,신4:13~14)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기록이 끝나는 바로 뒤에 연결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에서 모세까지의 기간이 1:6~7의 짧은 기록에 함축되어 있으며, 야곱의 후손이 전혀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으로서 한때 바로의 귀빈이었던 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세습하는 과정에서 노예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은 1:7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됨으로써, 원래 애굽의 백성들이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신분화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다 조직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영구히 노예화 할 방도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직접 역사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 위계승자이자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모세를 왕자의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사막으로 쫓아내시며 연단하신 후에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된 사실은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God's redemptive act)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들이시고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플랙(E.E. Flack)은 "일찌기 민족의 기원을 다른 책 중에서 출애굽기(Exodus)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는 책은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올맨(Alleman)과 플랙(Flack)이 공동집필한 '구약성경 주석'에서는 "모든 히브리 역사와 예언서에 나타난 역사 철학은 히브리인을 한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가 흐르고 있는 출애굽기를 끊임없이 회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와 기적과 역사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시내산의 낮은 정상인 호렙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출24:12~18, 신4:13~14). 히브리 율법에는 613개조의 규범이 있는데, 613의 숫자는 십계명에 쓰여진 히브리 글자의 수와 동일하기도 합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수는 365 즉 1년의 일수로 되어 있으며, 365를 축소한 것이 10계명이며, 그 십계명을 또다시 함축한 것이 마태복음22:37~40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의 모든 원리가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 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는 613개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롬3:20,롬7:7,엡2:9) 십계명은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20:3~17,신5:7~21)신약 성경에서도 간접적으로 여러곳에 인용되고 있습니다(롬13:8~10,갈5:14~15) 십계명은 오늘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할 천국윤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2. 모세오경에 나타난 혼인법(신7:3~4,출22:16~17)

창세기2:18~24말씀은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로다”(창2:24)라는 말씀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인류의 생존(창1:28)을 위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잠18:22),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며(딤후5:14),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히13:4)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마22:30)것으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엡5:21~33)로 서로 하나됨을 지키고 인간의 행복(창2:18)과 자손의 번성을 축복(창24:58~60)하며,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렘29:6)아름다운 제도 인것입니다

1) 이방인과의 혼인금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찌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신7:3~4) 이것은 통혼으로 야기될 우상숭배의 감염과 문화적 혼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유일신앙과 가난한 거민들의 우상숭배 신앙이 서로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고전6:14~16)또한 본문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선을 좇아 행하기 보다는 악에 빠져들 위험이 더욱 많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2) 처녀와 동침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레로 돈을 낼찌니라”(출22:16~17) 빙패란 결혼 지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결혼 지참금에 상당하는 돈을 처녀의 부친에게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 여자를 유혹하여 동침하면(약혼때의 관습처럼,신22:29)그 남자는 그 여자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하고 그 여자의 부친이 그 둘의 결합을 동의했을 경우에 그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하며 평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혼후에 수치 발견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신24:1) 신명기 24:1~4은 이혼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혼법은 바리새인들이 그릇 해석한 것처럼(마19:7) 결코 이혼을 공공연히 인정하거나 장려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혼시 반드시 이혼증서를 작성토록 하라는 모세의 이혼법은 이러한 법적이고 문서적인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당시 남자들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구두에 의해서도 여자를 내어 쫓을 수 있었던 이혼의 악습을 가능한 한 규제하고 억제시키기 위한 시대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근본취지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5:31~32, 19:8~9, 고전7:25~38) 유대 랍비 중 힐렐(Hillel)학파는 이것을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유’(마19:3)로, 샴마이(Shammai)학파는 여자의 음탕함, 즉 간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부녀의 간음은 이혼의 대상일 뿐만아니라 사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양자의 해석은 모두 극으로 치우친 견해로 볼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근본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이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증서를 써 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큼 충분하고도 객관적이며 보편 타당한 사유를 가르킨다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4) 근친상간에 관한 법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찌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찌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찌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비의 골육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골육지친이니라 너는 네 아비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찌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찌니라”(레18:6~18)레위기 18장은 성도덕에 관한 문제들, 즉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여러 율법가운데 성윤리에 관한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성(Sex)이 모든 윤리의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성적 타락은 모든 윤리의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성경은 특별히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근친 상간은 성적인 문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와 가정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제정은 당시 사회의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오늘날 현대사회의 극악적인 성문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하는 것입니다

5) 동성연애 금지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18:22) 이 말씀은 불결하고 타락한 성교 및 우상숭배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극악한 풍습으로 남색(男色)과 수간에 대해서 엄격히 경고하고 또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성을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타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곧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극악한 행위는 근친상간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AIDS와 같은 무서운 질병을 양상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롬1: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습은 그칠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으며 초등학교들에게 까지 이러한 일탈행위가 강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6) 짐승과 교합 금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레18:23) 수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동물과 똑같이 취급하여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패역한 행위로서 이방의 문란한 종교에서는 제사의식으로도 행하여 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러한 일을 가증한 일로 규정하였으며 사람과 짐승을 동시에 죽이는 형벌을 가했습니다(레:15~16, 신27:21) 오늘날에도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일들이 성을 상품으로하는 프로그램 제작자(포르노비디오)들에 의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적인 행위를 바라보며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성문란 행위가 일어날 정도로 극악한 일들이 죄의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도전행위이며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최악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각종 유흥업소와 모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러한 성적,윤리적문란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급기야 ‘문지마관광,나이트클럽 부킹, 화상채팅,음란폰팅,매춘관광’등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는 최악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정신을 계승하여 신앙심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법에서 나타난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불완전한 인간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 등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모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지켜져야 할 법률인 동시에 용서의 법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1) 사랑과 율법

사랑은 타인이나 이웃을 해할 수도, 해롭게도 할 수 없으며, 상처를 주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곧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 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13:8~10)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대인관계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관계이며, 그것은 제 5계명으로부터 십계명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는 달리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랑으로서 이 계명들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도와주며 함께하며 공동체의식을 갖고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근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더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 예수님과 율법

율법(Law)은 인정과 개인의 각 사정들을 일일이 수용하고 관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한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전체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엄격하게 집행되고 처리 되므로 모든 것을 법규정대로 한다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

고 다 이루리라”(마5:17~18)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율법의 완성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보다 강화되고 강력하게 적용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적용은 곧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촉구로 이어 집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9:28)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흘리시고 살을 찢어 죽기까지 하시므로 우리의 죄를 단 한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이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히12:2) 우리들을 향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4. 십계명(출20:3~17)

제 일은, 너는 나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 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삼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인 즉,너나 네 아들이나,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슴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찌니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찌니라

제 팔은, 도적질 하지 말찌니라

제 구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찌니라

제 십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출 20:3~17,신5:7~21)

십계명(Decalouge)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기본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청사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규범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성경의 다른 법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애굽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빼앗아 그들에게 주실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레18:4~5) 십계명의 목표는 생명의 길이되며, 여호와께 거룩하도록 하고,의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과 신약성경의 가르침은 십계명이 영구한 구속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19:17~19) 신약성경은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

지 못하고 따라서 의를 이룰 수 없으므로 그 외에 다른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갈3:24)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와같이 십계명은 사람의 죄와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회개케 함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려는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5. 하나님이 금하신 법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기본적인 율법입니다(출24:12~18, 신4:13~14) 십계명을 중심으로 구약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나 되는데 이것은 1년간의 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축소한 것이 십계명이며 십계명을 또다시 축소한 것이 신약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7~40)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 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13:8~10)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5:14~15)

십계명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3~17, 신명기5:7~21 등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 십계명이 가지는 권위와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날 모든 국가법의 기준이며 표준이 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율법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신성성에 대한 부정과 도전에 관하여 절대적으로 금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출20:3~4),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과 안식일을 경히 여기는 자의 습성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출20:7~10) 부모와 가족사랑, 그리고 타인의 생명과 순결, 소유와 명예를 존중히 여길 것을 강조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행위의 관습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출20:13~16) 더 나아가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범죄동기 까지 제어함으로서 생각과 마음까지 복종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에 기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6. 구약의 일반법 중 혼인과 이혼에 관한 법(신7:2~4,24:1)

1) 혼인에 관한 법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것이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찌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것이지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신7:2~4)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빙페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출22:16)

신명기 7:1~5말씀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정책으로 완전한 배척과 완전한 진멸이라는 무자비할 정도의 엄명이 주어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환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의 타락의 길에 빠져들지 않고 영원토록 여호와 신앙의 순수함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혼인관계를 절대금지 함으로써 사실상 우상숭배의 위험성과 자손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본문성경은 통혼으로 야기될 우상숭배의 감염과 문화적 혼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유일신앙과 가나안 거민들의 우상숭배 신앙이 서로 혼합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었습니다(고전6:14~16) 이것은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선을 좇아 행하기 보다는 악에 빠져들 위험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정혼하지 않는 여자를 유혹하여 동침하면 약혼때의 관습을 따라(신22:29)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부모에게 지참금(빙페)을 지불해야 하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들의 결합을 동의했을 경우에 그 남자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혼은 평생토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10:9말씀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뜻(창2:18~24)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결합(마19:6)이며 한 몸을 이뤄(마19:5) 자녀를 얻는 길(창1:27~28)이고, 죽음으로 끊어지며(롬7:2~3), 사랑과 순종의 관계(엡5:21~33)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결혼제도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정했으며(창21:21)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창24:8),자손의 번성을 축복하였으며(창24:58~60) 약혼중 부정한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파혼(마1:18~19)하였습니다 또한 친족과의 결혼을 금지(레18:6~18)하였으며 음행한 연고없이 이혼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마5:32), 일부다처제를 금지하였고(레18:18) 이방인과의 결혼은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창24:3,28:1,신7:3,수23:12)

2) 이혼에 관한 법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신24:1)

하나님께서서는 부당한 이혼을 싫어하시고(말2:16) 결혼한 후에는 사람이 마음대로 갈라서지 못한다(막10:2~9)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두어 이혼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간음했을 경우(막10:11~12)와 아내가 수치스런 일을 당했을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강간을 통해 강제로 결혼한 경우(신22:28~29)와 재판에서 처녀임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신22:13~19)이혼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만큼 이혼이 많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성격,성생활,재산문제,자녀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혼율의 급증은 또다른 결손가정을 야기시키고 이 사회를 더욱더 어둡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영원한 축복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앞에서 서약한 선서처럼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도와가며 사랑과 순종과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결혼과 가정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7. 성경에 나타난 사회윤리에 관한 법

1) 모함,허위증언(법정소송 관계법)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출 23:1~2)

출애굽기 23:1~9 말씀은 주로 법정에서 소송사건이 심의될 때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여러가지 관련 죄악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부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시함으로써 결코 권력이나 다수의 압력에 의해 판결이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위증자들과 양심의 법을 어긴 나악한 재판관 빌라도로 말미암아 죄없이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눅23:13~25) 따라서 성경은 공의를 굽게 하는 이 법정의 부조리를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애3:35,미3:9,잠17:23,호10:4)법정의 타락은 곧 사회 정의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나 재판관은 보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두려워하면서(신1:17,마10:28) 하나님의 공의와 선한 양심을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왕상21:12)

2)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문신)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레19:28)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방인들은 죽은자를 위해 슬퍼하면서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해 몸을 자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뿐 아니라 몸도 창조하신 분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또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고전3:17,6:19) 문신 또한 팔레스타인 이방민족들은 악귀로부터 몸을 보호해 준다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했으나 이 또한 자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3) 이웃 압제, 늑탈, 맹인 방해금지

3-1. 이웃 압제와 늑탈치 말 것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군의 샅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

게 두지 말며”(레19:13)

이것은 이웃을 강제로 억눌러서 그의 물건을 속여 빼앗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근본원리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품군에게 있어 품삯은 그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생계비이므로 하루해가 지면 그날의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품군의 사정을 고용주가 이해하고 즉시 지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신24:14~15)

3-2.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 것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앞에 장애물을 놓지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19:14)

율법은 경제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귀먹은 자에게 함부로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하거나, 혹은 보지 못한다고 하여 소경앞에 장애물을 놓는 행위는 그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는 결과가 되어 더욱 혹독한 율법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신27:18)

3-3. 원수의 가축일찌라도 돌려줄 것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찌며”(출23:4)

법정투쟁 등의 사연으로 인해 개인적인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한 사람이 경제적 손실을 당하게 될 경우라든지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일때에는 오히려 도움을 베풀어 주어야만 한다는 규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 사랑의 규정은 모세의 율법이 이방법과는 달리 신적(神的)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눅6:35)이 구약성경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4) 동물에 관한 계율

4-1. 안식일에는 육축도 다 쉬게할 것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라”(출20:10)

안식일 즉 주일을 특별히 성별하여 바침으로 모든 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업주가 기독교인인 경우 본인은 주일을 성수하고 믿지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를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으로 본문성경은 육축까지 쉬게함으로서 안식일의 모든 생산적인 행위를 금지시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 수소나 양과 염소가 나면 7일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칠일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 팔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열납되리라”(레22:27)

하나님께 드릴 예물일지라도 최소한 7일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긍휼이 깊이 반영된 규례인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 의미로는 난 지 8일만에 창조의 상징으로 행하던 인간의 할례 의식법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창 17:9~14, 출22:30)

4-3. 암소나 암양의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암소나 암양을 무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일에 잡지 말지니라(레22:28)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이방 족속들의 풍속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취해지는 것을 금지한 규례입니다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출23:19, 신14:21) 또는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모두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4-4. 곡식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 것

“곡식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찌니라”(신25:4)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타작방법은 편편한 널빤지에 구멍을 많이 뚫고 그곳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을 박은 일종의 타작기를 당나귀나 소로 하여금 타작할 곡식위로 끌고 다니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규례는 비록 누구든지 그 일하는 것에서부터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보상의 원칙을 말한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본절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교회 사역자 및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로부터 응당한 대가를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고전9:9~14, 딤후5:18)

5) 의복에 관한 계율

5-1.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신22:5)

이것은 남녀의 성(性)구별을 깨뜨리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은 당시 이방인들의 문란한 제사의식을 따르지 말라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각기 독특하고도 구별되게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질서에 순응하는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신성한 창

조질서에 어긋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와 단순성에 위배되는 가증스러운 일로서 방종과 타락으로 향하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5-2.긴 옷을 입고 위선하는 자를 조심하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막12:38~39)

남을 위해서 술선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성직의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성도들 위에 군림하여 존경받기 위한 권세 정도로 여기는 몰염치한 권위주의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대욕(38)은 재물욕(40)과 함께 기독교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두가지 유혹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8. 구약에 나타난 도피성 제도(逃避城制度)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찌라도 위하여 피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민35:16~28)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피의 보응에 대한 법칙이 수립되었으며(창9:5~6) 모세시대에는 이것이 신정국가의 기본원리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국전에 보응의 원리에 대한 예외규정인 도피성제도가 마련됨으로서 이스라엘법은 더욱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출21:13,신19:1~13)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모든 법칙보다 우선함을 나타내며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수될 구속의 은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수20:1~9) 도피성 제도는 살인자들의 보호처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살인한 자들의 피신처인 것입니다 피흘린 자는 반드시 피흘림을 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시대를 초월한 절대법으로서(창9:6) 만약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살인자의 판결기준은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로 가려졌는데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부주의, 실수 등으로 인한 살인)를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였던 것입니다(마5:21~28, 15:19)

9.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

출애굽기 20장:1~2 말씀은 십계명(Decalogue)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명하시기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당신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주의 권위로서가 아니라 구속주의 사랑으로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계신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생활로 갇은 고역과 학대를 통한 연단을 받게 하신 후에 많은 재물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습니다(창15:13~14). 이와같이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하게 된뒤에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잊지않으며 축복받게 하시기위하여 다시 광야에서 40년간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신8:11~16).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율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제사드리는 율례와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율법들을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본정신과 법칙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와 사회와 가정생활의 규범이 되고 현대 국가헌법의 근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의 약속이 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0.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를 세계 4대 성인(聖人)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고 위험한 논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사상 때문에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논리가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마다 구원이라는 내적세계로 가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종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본인 스스로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라는 명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단 한군데도 없는 가운데 막연히 선을 행하면 극락과 천국을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에서 설령 구원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갈 곳이 없는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어떠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요14:6, 딤후2:5, 행19:26)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시96:5, 대상16:26)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는 많은 유혹과 미혹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지배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정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평화와 기쁨과 찬양이 우리의 시련을 극복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무엇인가에 항상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 돈, 명예, 권세, 물질, 이성, 도박, 스포츠 등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는 곳으로 삶의 무게를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음료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코카콜라 사장은 "내 혈관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훈련과 실천은 이땅을 사는 동안에 쉼없이 계속되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11. 왜 인간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4~6)

사람들은 시청각적인 욕구에 민감하고 창조적인 형태의 입체적인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심리적인 현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에 의지하고 자 하는 모성본능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물이든 식물이든 또는 하늘에 있는 별과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에게 신(神)의 지위를 부여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가와 민족이든지 똑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를 이용한 무당,철학관 등이 아주 많이 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화는 어떤 특정 인간을 우상화 한 것으로 이를테면 북한의 김정일,독일의 히틀러,일본의 천황 등 주로 군국주의 국가에서의 통치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교만의 극치를 드러내며 스스로 남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수많은 목숨을 해하고도 이를 세습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신격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것으로 인간은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환상중에 베드로에게 고넬료 가정을 방문할 것을 지시했고, 자기 집을 찾아온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너무나 기뻐 큰 절을 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행10:25~26)라고 하면서 절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는 베드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목사,강도사,전도사)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신격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우상에 대하여(시115:4~8)

“저희 우상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시115:4~8)

우상숭배는 시청각적인 욕망에 의지하려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어리석고도 무서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증거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선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으로 그 중요성을 달리 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명을 희생하였고 갖은 고초와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로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 땅의 순교자들이 바로 이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순교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적인 삶으로부터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세계 곳곳에서 순교자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 1965~1968년까지 북한 땅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살해가 처절하게 감행되었습니다 순교자의 길은 단순히 총살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초와 수모를 겪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도 복음의 열정을 굽히지 않았던 생명력있는 순교였으며 그것이 오늘날 이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 갑은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마디 말만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나 화형틀에서 맞이하는 순교적 죽음을 기꺼이 선택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3)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적 축복과 한국교회의 급성장은 이국 낯선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의 길을 택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 기독교 탄압정책으로 인하여 포도대장의 친구 부자가 체포되어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포도대장이 '네가 거짓이라도 좋으니 한번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라'고 했으나 '나는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눈물겨운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4) 북한에서는 1945년 광복 이후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교회와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였습니다 특히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한국전쟁 당시 교회를 처절하게 파괴하였고 교인들을 숙청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생명력있는 교회는 지하교회로 더욱더 성장하였고 이러한 생명력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지하교회를 탐지한 북한 공산당 정권은 1965~1968년까지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거쳐 지하교회를 찾아내 무참히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1969년 북한을 탈출한 박명하양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철없는 어린이를 동원하여 성경책과 찬송가를 찾아낸 가정의 주민들을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 오늘날 분단된 조국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부흥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이며 이를 계승하여 순교자의 삶을 선택한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북쪽의 동포와 이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고전9:16)

6) 이러한 순교적 삶을 살아간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상을 숭배하려는 불신앙적이고 멸망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세상 만물들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만물의 관리자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창1:28) 그것은 인간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지배해야할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는 피조물에게 절하고 경배하며 재물을 드려서 우상을 만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에 따라 흥망성쇠가 반복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7)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행한 때에는 국가가 부흥 성장하고 사방의 원수를 물리쳤으나 신앙을 떠나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에는 원수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으며 사회 혼란이 가중되어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는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사회의 모든 죄악이 우상 숭배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레19:17, 겔3:17~21)

8)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신8:19, 계14:9~11) 이 말씀은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는 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수를 잘 믿는 요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5대까지 이르는 869명의 명세를 조사하였습니다 그결과 부통령:1명, 상하양원의원:75명, 재벌실업가:73명, 대학총장:4명, 대학학장:12명, 문학가:75명, 각종 발명가:21명, 목사(선교사):116명, 장로 및 주일학교 교사:186명 등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그와 반대되는 조사로 불신비방자였던 막스 쥬의 5대 후손 1,061명의 내역에서는 강도(3년이상 전과):96명, 정신이상자:58명, 창녀:65명, 극빈자:286명, 문맹자:461명 이들의 범죄로 인한 국고손실 1억5천만달러(1800억원)로 나타나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통계는 신명기 5:9~10말씀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9) 이스라엘 아합왕이 왕후로 이세벨을 용납할 때에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가져왔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큰 흉년이 들었으나 오히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로 이하여 이스라엘은 더욱더 도탄에 빠졌으나 선지자 엘리야의 생명을 건 결사적인 신앙투쟁으로 갈멜산 승리를 보았으며 우상의 제사장 850명을 일시에 살해하고 하나님께서비를 주셨으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왕상18:1~20:15)

10)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왕 발락이 히브리 민족을 저주토록 하는 청탁을 받

고 제단을 쌓고 저주했으나 오히려 축복을 받게되었을 때 발람은 받은 뇌물을 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있었으니 그 죄를 범하도록 비밀리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을 알고 발락왕에게 알려주고 받은 뇌물을 먹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함정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루에 23,000명씩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품을 때 우리에게겐 사악한 우상의 색깔을 벗어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 신약시대의 우상숭배

1) 탐심은 우상숭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골3:5~6)
여러 양태의 죄악을 지체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밀착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이라는 말은 부정과거 명령형 동사로 단순히 악한 행동과 자세를 제어하거나 지배해야 한다는 것 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옛관습을 쓸어버리고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음란은 부정한 성적 결합을 말하고, 부정은 도덕적인 타락을, 사욕은 이기심에서 출발되어진 무절제한 욕망을, 탐심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골3:8)고 명하고 있습니다

2) 재물이 많은 자의 근심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 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마19:20~22)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물질을 목표로 인생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모양으로도 따를 수는 있으나 물질만큼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중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내려 놓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구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결국은 멸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너무 부유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말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겸손한 생활들로 물질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질은 주님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여 올바른 경제생활을 습관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3.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출20:7)

1) 말과 글로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

일상생활 가운데 말,글,연기,연설등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이단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더욱더 죄가 큰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말세가 되면서 더욱더 활개를 치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자들의 언어와 행동에 진실되며 바로 행함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7:15)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1~23)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마24:5)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케 하리라"(마24: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2:4)

2) 예수님의 이름을 팔지말자

목사,장로,권사,안수집사 등 직분을 이용해 신자들에게 접근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에게도 기독교인이라고 밝혀 신용도를 유지한 다음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행19:10~13)

3) 반성경적으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해방신학,정치신학,폭력신학,혁명신학 등 정통신학이 아닌 반성경적 위장신학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다는 사실입니다(막5:5~7)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듣고 비교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지 말라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곡해하는 것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곡해하여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원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깨어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5)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의할 점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출3:15), '우리아버지'(시68:5,마6:9), '주님'(느4:14)으로 교회(행5:11),가정(신12:7),나그네 되었을때(신10:8),괴로울때(마6:34),즐거울때(예8:15)에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유흥업소에서나 불결한 장소에서 장난하듯 불러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6) 원망과 욕하는 마음으로 부르지 말라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하였던 러시아 우주인 가가린은 지구를 돌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되 스스로 존재하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죄악이므로 농이라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7) 종교는 다 같을 수 없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대부분 죄악을 향하여 달음박질 하는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모두를 죽이는 일이고 사탄마귀의 하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8) 하나님의 이름을 기쁜 마음으로 부르자

성경을 숨기고,공공장소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부끄럽고 죄된 것입니다

9) 입으로만 부르지 말자

열매가 없는 생활을 하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불러서도 앎될 것입니다 외적 열매인 전도(요15:8~16)는 생명을 일으키는 복음사역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가운데 전도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쉼없이 해야 할 당연한 것입니다 내적인 열매인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갈5:22), 즉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방탕, 시기, 증상, 모략, 교만(마15:18~19)은 우리가 버려야 할 최악이며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델 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알수있다(마7:16, 사29:13, 마7:2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제 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

- 10-1.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것(시29:2, 미6:9):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깨끗함과 완전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10-2.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시8:4):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사43:21)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10-3. 주의 행사와 말씀에 감사하여야 합니다(시107:21~22, 욥36:24):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기적을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11)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해야 합니다(말3:16, 시116:17) 여호와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시8:1~9)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할때에도 경건하게 합니다(시76:11, 전5:2)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충만해지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생각하게 되며(시116:12)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생활하게 하십니다(빌2:13)

12) 작정한 헌금에 관한 것

작정한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신23:21~23) 그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약속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작정하기전에 철저히 기도하고 작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13) 제 3계명에서 금하신 것

13-1.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할 것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롬2:24)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규범에서 벗어날 때 교회의 직책이 훼방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고후6:3)

13-2.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장성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딤후 3:13)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잘못 감당하므로 떡 한조각을 얻기 위하여 구걸하게 되는 것입니다(삼상2:36)

13-3. 교회의 각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선물입니다(갈1:1,민18:7,벧전 2:9) 우리가 받은 직분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것이 맡은 바의 본분일 것입니다

14.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주일과의 관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로, 사람이나 동물까지 쉬는 날로 지켜졌습니다(창2:2, 출16:29) 그러므로 안식일의 1차원적인 근거는 창조사역완수(창2:1~3)이며 2차원적 근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완수(신5:15)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로 승화됩니다 십계명가운데 안식일의 계명은 신약시대에 와서 새로운 개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율법적인 관점에 의해서만 지키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안식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것입니다(행20:7, 31:13~17)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언약의 증거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호2:11->골2:16~17) 그러나 그 기본 정신은 신구약을 통해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루를 성별하여 바침으로 모든 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신앙행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을 가리켜 흔히 '일요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휴머니즘적 발상에서 오는 죄악인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주일에 모여 떡을 떼며 지내고(행20:7) 주일에 모여 헌금하였으며(고전16:1~2) 사도요한은 밧모섬에 귀양(Live in Exile) 또는 정배(定配, EXILE)를 가서 주의 날(계1:10)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 구약시대의 안식일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2:3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창조섭리의 원리에서 일곱째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기원을 따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며 이것은 십계명에 명시되므로 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쉬는 것은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휴식이 없는 삶은 곧 죽음과 같은 삶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켰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형하였습니다(출31:14)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정하여 토지도 쉬게 하였으며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여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영광된 해로 정하였습니다(레1~12, 느10:31) 출애굽기31:13~14 말씀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찌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즐거움을 얻고 복되게 되는것이며(사56:2, 58:13~14), 안식일을 범하면 모든 재앙이 사람과 성읍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 하셨습니다(느13:17~18, 출16:5~27) 하나님

께서 주신땅이 거룩하고(출3:5)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며(민15:40) 하나님께서 복주시나 나라와 기업이 거룩하고(신32:51)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이 거룩하다고(출20:8~11)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1:16 말씀에서 내가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안에서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2) 신약에서의 거룩한 주일

신약에서의 주일은 공휴일의 개념인 육체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전도,구제,봉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복받는 날인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인 토요일 오후와 주일 오후에는 적당한 휴식도 필요할 것입니다(눅13:10~17) 그럼에도 안식일에도 선한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마12:12) 구약시대의 안식일에는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선을 베푸는 일이나 시급을 요하는 일에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마12:1~37) 그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신의 휴식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막2:27~28,6:31,골2:16,눅23:56)

15. 부모 공경의 방법과 상급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제 5계명은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 지켜야 할 여섯가지 계명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계명으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윤리를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1~3의 말씀에서는 주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으며 신명기 5:16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복을 누리며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25에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주 문안하며 위로하고 연약해진 몸을 돌보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항상 건강을 체크하여 병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폭력을 일삼으며 심지어 생모를 강간하고 내다버리기 까지 하는 안면수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30:17)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마15:4)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찌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신21:18~21)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찌니라”(신27:16)

성경은 이와같이 부모를 조롱하거나 훼방하고 패역한 자녀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고돌로 쳐 죽이며 저주까지 받는 극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효자를 찾아내어 상을 주어야 할 만큼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의 늘 근심 거리가 되고 인생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잠13:1)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잠15:5)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

의 근심이니라”(잠10:1)

잠언서 성경에는 더 많은 구절에서 부모의 근심과 걱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나약하고 세상으로만 치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신뢰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주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가족사랑을 계승해 나가는 좋은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 부모와 자식에 대한 교훈

1980년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최고 관심사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TV-CF에 영화배우 박노식 부자가 나와 “개구장이가 되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오”란 유행어까지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의 자녀문제는 탈선으로 인한 비행청소년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한명밖에 앓는 탓에 극단적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의 문제에서 파생하고 있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간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교훈을 통해서 이러한 부모와 자녀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 불효한 자식

불효를 습관처럼 하는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니라”(잠19:13)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잠19:26)

오히려 이 사회에서 문제의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을 흔히 볼수 있는 것입니다

2) 생존자 부모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요일4:20)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거짓말과 같다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 부모의 은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사 1:2~4)

이스라엘의 배반을 부모의 사랑에 대한 거역으로 비유한 말씀으로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녀는 금수보다도 못할 뿐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듯 부모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부모의 교육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딤후5:4)

디모데전서 5:4~8 말씀은 효(孝)의 실천에 관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효의 실천과 하나님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부모에 대한 공경이 무시될 때 그 사람의 신앙 자체도 무의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첩경이고(엡6:1~3), 기독교는 실천적인 종교이며, 부모 공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종교적 의무로서 기독교의 근본윤리이며(출20:12)교회는 경건 훈련의 일환으로 효도를 적극 권장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5) 훌륭한 자녀의 배경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그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끊이지 않으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배경에는 한나가 있었으며,어거스틴의 배경에는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는 엘리사벳이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실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불신가정의 교육은 끊임없이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일수 밖에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국은 사회악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데 쓰여질 뿐입니다 때문에 이땅에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우리가 힘써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6) 예수님을 위한 봉사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8:1~3)

예수님 당시 가부장제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많은 여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성경에도 많은 여인들이 수종들며 보필하였고 봉사 헌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7) 제사와 음식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전10:20)

우리나라는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제사가 성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 문화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경적 전통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제사의 대부분이 죽은자를 위하거나 있지도 않은 것을 위해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생명체인 것처럼 하는 것은 더욱 죄악인 것입니다

17. 부모의 자녀를 위한 교육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주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분을 지킬 때 주님이 주시는 복된땅에서 복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에베소서는 자녀 양육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

1)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격노케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분을 내거나 자아를 강요하지 말고 주안에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대화로서 훈계하며 양육해야 할것입니다 부모의 도리는 내팽개친 채 자녀의 효도만 강요한다면 자녀가 듣지 않을뿐더러 설령 듣는다 해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 부모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할(골3:21)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바로 세워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자녀에 대한 성경적 교육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4~17)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노동을 싫어하여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도박과 주색에 빠져 가정생활이 제대로 영위되지 않을 때 자녀의 성장은 매우 어두운 환경이 될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미래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고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떨어뜨리며 사회생활에서도 평탄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탈선을 유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를 원망하고 배반하며 심지어 부모를 강간하고 살해하며 자살까지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확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원인은 결손가정의 부모 또는 물질만능주의 사상에 물들어 버린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과 기독교 교육으로 바르게 양육하였음을 딤후 1:5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선한 가정을 이뤄 나가는 것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딤후 5:8 말씀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을 때 그 부모는 믿음을 배반한 자 일뿐만 아니라 불신 부모보다 더 악한 부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딤후5:4) 우리나라 속담에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세대를 세워 나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 제 6계명에서 금하는 죄와 교훈

“살인하지 말찌니라”(출20:13)

제 6계명은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라는 계명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며(창9:6) 모든 생명은 피에 있고(레17:11) 피는 여호와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인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창4:10)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께서는 결과로서의 살인 뿐만아니라 살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원인까지도 금지시킴으로서(마5:21~22) 이 규정을 더욱 승화시켰습니다

1) 제 6계명이 금지한 죄

세상의 법률(형법)에서는 행위와 결과를 더 중요시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일 3:15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할 만큼 살인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원한관계에 대한 복수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피해에 대한 보복행위이므로 금한다고 롬12:19~21에 밝히고 있습니다 도리어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마5:44),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가르치며(롬12:14)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5:43~45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자살행위도 살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이 피곤하거나(욥3:20~23),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을때(전2:17),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거나(눅4:9), 심한 고통을 느낄때(계9:6)와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흔히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의 말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러했고, 예수를 판 가롯유다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육체는 성별된 존재(창9:5~6, 고전6:19)이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반한다고 했으며(시31:15),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고후12:8~12)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6계명은 살인에 이르는 모든 원인과 과정들까지 금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에서 생기는 살인은 인정하셨습니다 (신20:1~4) 그리고 새집을 건축중인자와 포도원을 가꾸는 중인 자, 약혼한 자와 겁이 많은 자는 병역을 면제하고 징발의 의무도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신20:5~9) 성읍을 공격하려 할 때는 먼저 평화를 선언해야 합니다(신20:10~11)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신의 피도 흘리게되는 것입니다(창9:6) 생명의 보존을 경히 여기는 것,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또

한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마25:42~43, 약2:15~16), 시기, 질투(잠14:30), 모든 악한 생각(엡4:31~32)까지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기 때문에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습시다(시69:16, 86:5, 135:3) 악의 근원인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하게 된것입니다(계12:9, 유1:6, 눅10:18) 그러나 사탄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막5:7, 욥1:12)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19:18)

“사람을 쳐 죽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출21:12)

“네가 새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흘린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신22:8)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19:14)

원망하거나 폭력과 구타를 하거나 미연에 사고방지를 못한 점, 힘없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잔인함과(신22:6) 남을 비판하는 행위(마7:3~5)들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제 6계명이 주는 교훈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은혜와 진리를 향한 훈련과정입니다 형제와 더불어 원망받을 행위를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카인의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주안에서 화해하고 사랑하는 결단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눅10:30~37)가 주는 교훈은 현실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는 광경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세사람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모두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고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한 사람은 사마리아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분상 많은 교육과 교양이 있으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긴 사람은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의 문제까지도 관여하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시다 하나님은 살인에 대하여 세상적 법률적 잣대로 규정하지 않았습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행위까지를 살인의 영역에 포함시켰습시다 생명에 대한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19. 제 7계명에서 말한 간음죄와 처벌규정

제 7계명은 남녀간에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질서를 따라 남편과 아내를 한몸으로 만들어(창2:24) 장차 올 '교회와 그라스도'와의 연합을 예표 시켰습니다(엡5:31~32). 따라서 이 성서로운 연합체를 파괴하는 간음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로서 곧 신성모독행위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간음에 대한 규례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레20:10).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명정신을 살려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도 범죄로 해석하셨습니다(마5:27~32).

간음죄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간음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범하기 쉬운죄로서 말세의 가장 큰 사회악중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적욕구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에게 불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미녀와 미남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유혹하여 간음죄로 성적타락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윤리와 도덕을 문란케 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를 통해서도 그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창19: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외에 부도덕한 성행위와 간음죄를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위함이며 육체적 쾌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는 길을 차단코자 함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선 간음한 자를 돌로 쳐죽였던 것입니다(레20:10, 신22:22). 그러나 신약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8:4~11 말씀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하여 용서하며 회개를 촉구하였고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며(고전10:8) 모압여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간음하다가 염병으로 24,000명이 죽은 기록도 있습니다(민25:1~9). 심지어는 짐승과 간음하는 극악한 행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레18:22~23, 20:15~16).

이와같이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6:9~10). 간음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전6:18)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13:4)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음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고전5:1~2)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

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롬1:26~7,레18:22) 이와같이 간음과 통간과 수간과 동성애의 마음과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직면 하게 되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러한 성적타락은 극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바 현재의 가정을 더욱더 소중히 생각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20.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27~28)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육체적인 관계에 앞서 심리적인 관계의 요인까지도 포함함으로써 그 근원을 차단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상태와 마음의 형태를 구분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앞에서 정직한가 하는 관점이 될 것입니다. 이성적인 관심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수한 측면만 부각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간음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으로 향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우연중에 이성을 바라보았다고 간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가 서로 마음에 음욕함이 있고 몽중이나 마음으로 간음하였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간음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있고 그 본심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육체적으로 간음한 것을 금했다면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까지 금하신 것으로 훨씬더 어렵고 힘든 수행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성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약4:4)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2: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인들을 음란히 좇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신31:16)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 하는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니”(고전6:9)

성경은 간음하는자들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원리와 질서에 의해 일부일처제를 지향하는 기독교의 성적윤리관은 이러한 성경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사54:5)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마

25:1)

이것은 우리가 순결해야 하는 이유를 영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부가 지켜야 할 순결성을 지키고 신랑(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개와 바로서는 신앙으로 성숙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혼률이 급증하는 오늘날은 혼전순결을 지키는 사람을 오히려 모자라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지식 정보화라는 좋은 영향도 끼치고 있지만 반대로 문란한 성문화를 양산하는 계기가 되는 등 그 악영향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와 가정예배를 세워 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21.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도적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20:15)

제 8계명은 이웃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령인 동시에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두가지 측면에서 확대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도적질의 개념은 단순히 남의 재산을 은밀히 훔쳐가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 행위에 의한 착복 등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과 도적질의 금지대상은 단순히 재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도적질은 빈곤과 가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야고보1:15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셨습니다

1) 도적질하는 죄

1-1.도적(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일들은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우리 속담이 말해주듯이 처음에는 호기심 또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해 골육지책으로 시작한 도둑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급기야는 습관처럼 행해지는 것입니다

1-2.강탈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으로 늑탈까지 하게 되는데 도적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 뜻을 제대로 못이룰 경우 강탈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강도는 강탈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하나의 인적가해 수단으로 도적에서 강탈로 강탈에서 강도로 범죄의 성장구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는 도적과 달리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거나 실제로 살해하는 경우까지 있어서 사회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1-4.약탈과 토색

“빈핍한 자를 불러 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너희에게 별하시는 날에 와 멀리서 오는 환난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사10:2~3)

힘없는 고아와 과부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행위는 금수보다 못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과 도적질

2-1.십일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3:8~10)

이 말씀은 십일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십일조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반대로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넘쳐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십의 구조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2-2.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마태복음22:15~22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엄격히 구별하시고 그것의 소유자에게 각각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와 입으로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속에 나타나도록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2-3. 헌금과 나의 마음

마태복음 6:19~21에는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마음이 있는 거일까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소유가 아닌것입니다 이 땅은 썩어 없어지는 곳입니다 지키고 있어도 좀과 동록이 해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지대를 찾을 수 없는 무가치한 이땅에 보물을 쌓치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3) 도적질에 해당되는 것

3-1. 불의한 재물:합리적이지 못한 고리대금업,뇌물,투기로 인한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한 것입니다

3-2.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것:나의 불성실로 인해 국가나 사회,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또한 도적질 한 것입니다

3-3. 하나님과의 약속:서원한것,작정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또한 도적질 하는 것입니다

3-4. 재물에 대한교육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므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눅12:15, 히13:5,마16:26,막8:36)

3-5.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

부모의 재물을 몰래 훔치거나(잠28:24),상품에 대하여 속이는 행위(신25:15), 매점매
석하는 행위(잠11:26~27), 주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도 절도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
고 있습니다

22. 네 이웃에 대한 거짓증거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출20:16)

위증에 대한 금지 규정이 십계명에 포함된 이유는 하나님은 진리이시므로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도 참과 정의에 따라 행동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행위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요8:44) 또한 성경에는 재판 석상에서의 거짓 증언 때문에 무죄한 사람이 죽은 경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왕상21:13) 따라서 모세 율법은 만일 어떤 사람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위증인은 피고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신19:15~21)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24:47~4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증인들이며 복음 전파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으로 말하고 꾀방하고 험담을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12:2에는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실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멸망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일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하여 진실과 사랑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A.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마19:19,눅10:27)

B.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눅10:36~37)

C.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자(마5:43~44)

D.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자(갈5:13~14)

E.자기 혀를 재갈 먹이는 자 (약1:26)

F.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아는 자(약2:22)

G.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함을 아는 자(약3:11)

H.화평케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약3:18)

I.열심으로 선을 행하면누구든지 해할수 없음을 믿는 자(벧전3:13)

J.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줄 아는자(벧전5:5~)

K.이웃으로 더불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엡4:25)

L.새사람을 입음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골3:9)

M.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자(빌4:5)

N.피차 용서하되 사랑을 더하는 자(골3:13~14)

O.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않는 자(살전4:5~6)

P.사랑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는 자(살전5:13)

Q.망령되고 헛된말을 버리는 자(딤후2:16)

R.좋은일에 힘쓰기를 배우는 자(디3:14)

S.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돌보는 자(행10:2)

T.항상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있는 자(행13:43)

23.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20:17)

제 10계명은 탐심에 관한 교훈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죄의 근원으로보며(약1:15) 우상숭배와도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골3:5) 특히 이마지막 계명은 구체적인 행동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인간의 생각까지 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까지 감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여호와 신앙 없이는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다른 고대 법전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신적 기원을 가진 율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명예에 대한 욕구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존력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이러한 본능적 욕구들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탐심의 원인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이웃에서는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순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유혹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나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아름답게 포장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의 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으로부터 완전분리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롯유다를 보면 돈 전대를 맡아 사사로이 가져가던 죄가 장성하여 마침내 스승이며 만군의 왕이신 예수그리스도를 팔게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마 26: 14~16) 발람도 돈에 욕심이 생겨서 눈이 재물에 가려졌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되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민25:1~3,8~9,계2:14)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줄알며(빌4:11) 순종하는 믿음생활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24. 주님이 말씀한 두 계명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7~40)

본문 성경은 예수께 대한 세 번째 질문으로 율법중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에 관한 종교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율법사가 이같은 질문을 한 까닭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들의 삶이 수많은 구전적,성문적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점철된 것이었기에 그들이 항상 그 같은 계명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에 대한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막12:28~34)

1)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1.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즐겁게 해 드리는 것과 거짓 없는 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서(요일5:3)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세상을 사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것이라”(요일2:15~16)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안에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요17:14) 그러므로 우리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째 계명의 성취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2)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2-1.우리의 이웃의 상대자

누가복음10:30~37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만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을 때 바리새인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세사람이 똑같은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가운데 두사람은 그냥 지나 가거나 외면하면서 지나갔고 한 사람은 자신의 나귀에 태워 완치될때까지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한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났을 경우

는 차치하고 다른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세사람 가운데 누구일까요?
선함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
제가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미룰 때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2-2.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

누가복음 16:19~31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
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부의 축적에 관한 내용
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란 주거부정에다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게으르고 잘 씻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옛새동안 열심히 일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사로는 거지로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식으로 부를 축적했는지 알
수 없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두사람의 외형적인 차이점으로
볼때에는 나사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면적인 차이점입니다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고 문제를 별로 찾을 수
없었던 부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천국과 지옥
이라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노숙자를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게으르고 냄새
나고 더러운 인간 말종들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
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2-3.나에게 이웃이 되는 범위

A.가족과 친족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
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5:8)

B.믿는 형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에게 할찌니라”(갈6:10)

C.이웃과 민족:행2:44~47

D.이웃나라와 세계인:막16:15,행1:8,2:8~12,14:47

E.원수까지:롬12:30,눅7:27~28

2-4.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A.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

B.이웃의 혈벗음,굶주림,고통,아픔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

C.네 이웃을 내몸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도와주며 헌신하는 사랑